

수특 고전소설의 재구성

영웅소설

메모 활용법

모의고사 실력 향상을 위해 평상시 문학과 독서를 분석하도록 하자.

■ 시

화자, 청자, 시적 대상, 상황, 정서, 태도를 찾는다. (말로 표현하기 어렵다면 대신할 수 있는 시어를 찾는다)

■ 소설, 극

인물 관계도, 사건, 배경, 서술 방식, 상징적 소재

■ 수필

인물, 사건, 배경, 깨달음

■ 독서

단락 정리 및 내용 전개 방식

미니 모의고사 푸는 방법

■ 1주일에 5일씩 풀도록 한다.

평일에는 1-5회 문제를 풀고, 토요일에는 틀린 문제 오답을 하도록 한다. 일요일에는 문법을 복습하자.

■ 문학과 독서 지문은 반드시 시간을 체크하여 시간을 관리하도록 한다.

■ 채점은 그날 바로 한다.

■ 모든 문제의 근거는 지문 속에 있다. 반드시 정답의 근거를 지문에서 찾아 표시하도록 한다.

■ 틀린 문제는 해설을 바로 보지 말고 맞힐 때까지 다시 풀도록 한다. 정답을 찾았을 때는 해설지와 자신의 근거를 비교하며 확인한다.

■ 틀린 이유는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다음에 어떻게 풀어야 맞힐 수 있는지 고민하자. 잘못된 풀잇법이 있다면 수정하자.

■ **학생들끼리 복사해서 공부하는 건 OK! 단, 수업용, 과외용으로는 무단 복사 및 배포 금지!**

미니 모의고사

수특 고전소설 - 영웅 소설

총 소요 시간

맞은 개수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09년 6월

세월이 물같이 흘러 웅의 나이 15세라. 골격이 웅장하고 기운이 뛰어나더라. 하루는 웅이 모친께 청했다.

“소자 지금 나이 15세요, 이곳이仙境(仙境)인지라 가히 살만한 곳이지만, 대장부 세상에 처하매 한곳에서 늙을 것이 아니옵니다. 신선도 두루 돌아다녀 박람(博覽)*한다 하거늘 소자가 슬하를 잠시 떠나 산 밖에 나가 세상을 구경하고 황성 소식도 듣고자 하나이다.”

왕 부인이 매우 놀라며 말했다.

“천리 타향에 너는 나만 믿고 나는 너만 믿어 서로 의지하며 살아가거늘 네 일시인들 내 슬하를 떠나며, 내 어찌 너를 내어 보내고 일시인들 잇을꼬냐. 네 어디를 갈 양이면 한가지로 할 것이라. 차후는 그런 마음 두지 말라. 매우 놀랍도다.”

웅이 다시 아뢰지 못하여 물러 나와 월경 대사와 의논했다.

“내 이제 세상에 나가도 남에게 화를 입지 않을 것이옵니다. 또한 내 몸이 중이 아니라 오래 산 속에 있사오니 황성 소식도 모르고 나의 심중에 품은 일도 아득하와, 일전에 모친께 사정을 고하오니 도리어 꾸중하시는 바람에 다시 거역하지 못하였삽거니와, 대사께서는 저를 위하여 모친의 마음을 돌려 저의 뜻을 껴 함이 어떠하오리까?”

대사가 말했다.

“공자의 말은 반반한 장부의 말이로다.”

하고 부인 앞에 가서 고금의 일을 이야기하다가 공자의 품은 큰 뜻을 여쭙니 부인이 말했다.

“말은 당연하나 만리타국에 보내고 어찌 이 적막강산 사고무친한 곳에서 잠시라도 잇을 수 있으며 또한 저의 나이 어리고 세상사에 어리석은지라, 어지러운 세상에 나가 어찌 될 줄 알리오.”

“부인의 말씀도 일리가 있사옵니다. 그러나 이제 공자를 어리다 하시거니와, 천병만마에 시석(矢石)*이 비 오듯 하여 살기(殺氣)가 충천한 곳에 넣어도 조금도 걱정할 바가 없을 것이니 부인은 어찌 사람의 운명을 의심하십니까? 홍문연 살기 중에 패공이 살아나고, 파강산 천경사의 부인이 살아났으니 어찌 천명을 근심하리오. 소승 또한 공자의 환란을 짐작하지 못하오면 어찌 출세함을 권하며, 공자 세상에 나가도 부인은 이곳에 계시오면 무슨 근심이 있으리까?”

이렇게 설득하니 부인이 한동안 생각하다가 말했다.

㉠ “만일 존사의 말씀과 같지 못하면 어찌하리오?”

“공자의 평생 영욕(榮辱)을 다 알았사오니 조금도 염려 마옵소서.”

부인이 마지못해 허락하니 대사와 웅이 기뻐 이튿날 길을

떠났다.

(중략)

“십 년을 정성 들여 선생을 찾아왔는데 뵈지 못하오니, 바라옵건대 동자는 가신 곳을 가르쳐 주소서.”

동자가 웃으며 말했다.

“나무꾼이 기러기를 쏘아 맞히지 못하매 제 공부 부족함을 깨닫지 못하고 활과 살을 꺾어 버리니 그대도 나무꾼과 같도다. 그대 정성이 부족한 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주인이 없음을 원망하니 매우 우습도다. 다만 선생께서는 이 산중에 계시건만 산세가 위낙 험하니 그 종적을 어찌 알리오?”

다시 만나절을 기다렸으나 종적이 묘연한지라. 울적한 마음을 이기지 못해 붓을 잡아, 못 보고 가는 뜻을 글로 쓰고 동자를 불러 하직하고 나오니 마음을 헤아리지 못할러라.

이때 철관 도사가 산중에 그윽이 앉아 웅의 거동을 보더니 벽에 글을 쓰고 가는 것을 보고 불쌍히 여겨 급히 내려와 벽의 글을 보니 다음과 같았다.

〔 십 년을 지내 온 나그네가
만 리 밖에서 찾아오도다.
[A] 못에서 웅이 날아오르려 하거늘
이 또한 정성이 모자람이라.

도사가 보기를 다하고 크게 놀라 급히 동자를 산 밖에 보내 웅을 청하니 웅이 동자를 보고 물었다.

“선생이 왔더니까?”

“이제야 오셔서 청하시나이다.”

웅이 반겨 동자를 따라 들어가니 도사가 사립문에 나와 웅의 손을 잡고 기뻐하며 말했다.

“험한 산길에 여러 번 고생하였도다.”

하고 동자를 시켜 저녁밥을 재촉하여 주거늘 웅이 먹은 후 감사하며 말했다.

“여러 날 굶주린 배에 좋은 밥을 많이 먹으니 향기가 뱃속에 가득한지라 감사하여이다.”

“그대의 먹는 양을 어찌 알아 권하였으리오?”

하고 책 두 권을 주며,

“이 글을 보아라.”

하거늘, 웅이 무릎을 꿇고 펼쳐 보니 성현(聖賢)들이 쓴 책이라. 웅이 다 본 후에 다른 책을 청하니, 도사가 웃고 『육도삼략』을 주거늘 받아 큰 소리로 읽었다. 도사가 더욱 기특하게 여겨 『천문도』 한 권을 주거늘 받아 보니 기묘한 법이 많은지라. 도사가 가르치는 술법을 배우니 뜻이 넓어지고 눈앞의 일을 모를 것이 없더라.

— 작자 미상, 「조웅전」 —

* 박람: 사물을 널리 봄.

* 시석: 전쟁에 쓰던 화살과 돌.

정리

1. 위 글의 등장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철관 도사는 조웅의 자질을 의심하고 있다.
 - ② 왕 부인은 조웅의 입신양명을 희망하고 있다.
 - ③ 동자는 조웅의 판단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
 - ④ 월경 대사는 조웅의 장래에 대해 불안해하고 있다.
 - ⑤ 조웅은 어머니의 입장보다 자신의 포부를 앞세우고 있다.

2. [A]의 서사적 기능을 <보기>에서 골라 바르게 묶은 것은?

<보기>

- ㄱ. 주인공의 예언 능력을 보여 준다.
 ㄴ. 주인공의 심리적 정황을 제시한다.
 ㄷ. 주인공의 위기를 예고하는 복선이 된다.
 ㄹ. 주인공의 고민을 해소하는 계기가 된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 ④ ㄴ, ㄹ ⑤ ㄷ, ㄹ

3. <보기>를 바탕으로 위 글을 이해할 때, <보기>의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기>

- 소대성 : 나는 「소대성전」의 주인공이야. 외세의 침입으로부터 나라를 구해 영웅이 되었지. 그런데 네가 영웅이 된 과정은 나와 다르더군.
- 조 웅 : 나는 태어나면서부터 간신의 박해를 받아 고생을 했고, 그 간신이 일으킨 반란을 평정해서 영웅이 되었지. 태어나면서 부귀영화를 누리기까지 줄곧 적과 싸움을 한 셈이야.
- 소대성 : 나도 부모를 잃어 고생한 적은 있었어. 하지만 선천적으로 무예와 도술을 지니고 있었기 때문에 특별한 수련의 과정이 필요 없었어.
- 조 웅 : 그렇구나. 나는 너와 달리 스승을 찾아야 했고, 참으로 긴 수련의 과정이 필요했어.
- 소대성 : 그래서 너의 이야기에는 나의 이야기와 다른 ㉠ 특징이 있구나.

- ① 등장인물의 수를 늘려 설정된 사건을 보다 다양한 시각에서 조망할 수 있게 한다.
- ② 주인공의 영웅성과 함께 대사나 도사의 신비한 능력을 부각시켜 환상적 분위기를 연출한다.
- ③ 스승의 존재를 부각시킴과 동시에 공부에 대한 강한 신념을 드러내어 소설의 교훈성을 부각시킨다.
- ④ 주인공의 시련을 좀 더 단계적으로 설정하여 사건의 전개 속도를 빠르게 하는 한편 주제를 심화시킨다.
- ⑤ 선천적으로 초월적 힘이 주어진 경우보다 고난 극복에 대한 주인공의 현실적이고 강인한 의지를 부각시킨다.

4. 문맥으로 보아 ㉠에 대한 독자의 반응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왕 부인은 ‘선견지명(先見之明)’이 있군.
- ② 왕 부인은 ‘노심초사(勞心焦思)’하고 있군.
- ③ 왕 부인은 ‘식자우환(識字憂患)’에 해당하는군.
- ④ 왕 부인은 ‘시시비비(是是非非)’를 가리고 있군.
- ⑤ 왕 부인은 ‘적반하장(賊反荷杖)’의 말을 하고 있군.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14년 6월

조옹이 었드려 불효한 죄를 청하니 부인이 대경(大驚) 왓,
“우리 모자는 죄인이라 마음이 늘 숲에 앉은 새 같거늘,
네 나가서 무슨 죄를 짓기라도 한 것이냐?”

하니, 웅이 두려워하여 일어나 위로 왓,
“어찌 남에게 죄를 지었겠나이까? 모자지간에 불효막심한
일이 있삽나이다.”

하고, 강호에 다다라 장 소저를 취한 곡절을 아뢰니 부인
이 대희(大喜) 왓,

“죄 지은 자는 살지 못한다는 말이 옳구나. 본디 겁먹은
마음에 무슨 죄라도 지었는지 미리 겁을 먹고 놀랐구나.”

하고 다시 물어 왓,
“장 소저를 내가 보지 못하였으나 네 말을 들으니 진정
네 짝이로다. 그 또한 하늘이 시키심이니 어찌 인력으로
취하였으리오? 그러나 우리 형세가 이러하니 어찌 예절을
기다리겠느냐? 죄 될 것이 없으니 조금도 두려워 마라.”

하며 다시 그 동안의 일과 장 소저 가문을 물으니 웅이
일일이 아뢰니, 부인과 제승(諸僧)이 다 듣고 기이히 여겨
칭하(稱賀) 왓,

“하늘이 인도하심이라, 어찌 기특지 아니하리오?”

월경 대사 왓,
“부인은 소송이 전에 드린 말씀을 이제야 증험한 줄을 아
시나이까?”

부인이 칭찬 왓,
“우매한 소견으로 어찌 대사의 신기함을 알겠나이까?”
하고 대사에게 항복함을 마지아니하더라.

이때 대사가 웅을 데리고 신통한 술법을 의논하더니
이러구러 삼 년이 되었는데,

일일은 웅이 부인에게 여쭙되,
“소자 처음에 이리로 올 적에 선생께 기약을 정하고 왔
사오니, 이제 슬하를 잠깐 떠나 선생께서 실망하시는 탄
식이 없게 하겠나이다.”

하니, 부인이 새로이 슬퍼 왓,
“여러 해 그리던 마음을 다 펴지 못하고 또 가려 하니,
네 말은 당연하나 정리(情理)에 절박하고 또 사람의 일
을 알지 못하니 네 회환(回還)이 더딜진대 네 거처를

[A] 어디 가서 찾으리오?”

월경 대사 왓,
“부인은 추호도 염려치 마소서. 공자의 거처는 소송이
알고 있나이다.”

부인이 이미 대사의 신기함을 아는지라, 부인 왓,
“만일 대사가 아니면 객지에서 어찌 우리 모자가 서로
의지하리오?”

하고 웅에게 왓,
“부니 데 선생을 보고 속히 돌아오라.”
당부하니, 웅이 하직하고 말을 달려 수일 만에 관산에
이르니 이전에 보던 산천이 모두 반기는 듯하더라.

[중략 줄거리] 조옹은 이후 군대의 원수가 되어 황위를 찬탈한 이두
병 세력과 전쟁을 벌이며 아버지의 원한을 갚고 황실을 회복하기 위
해 노력한다.

원수가 창으로 찰쭈며 삼대의 우편으로 달려들며 집전하
니 삼대는 항상 왼손으로 칼을 날리며 좌편으로 달려들거
늘 원수가 계속 피하여 우편을 범하니, 이날 팔십여 합에
승부를 정하지 못하고 각각 본진으로 돌아오니라. 삼대가
크게 의심 왓,

“조옹이 필연 무슨 아는 일이 있는가 싶으니 피이하도다.”
하고 행여 천기를 누설할까 두려워하더라. 원수가 본진으
로 돌아와 강백더러 왓,

“삼대는 용맹이 실로 범상한 장수가 아니라, 쉽사리 잡지
못할 것이니 내일은 강장이 먼저 나아가 싸우라. 내 기세
를 타 함께 싸우리라.”

또 이르되,
“삼대의 좌편을 범치 말고 부디 경적(輕敵)*지 말라.”

하더라.

이튿날 삼대가 창을 들고 말을 내달아 크게 외치며 왓,
“오늘은 맹세코 네 머리를 베어 분함을 씻으리라.”

하고 진전(陳前)에 횡행하거늘 강백이 또 창을 들고 진전
에 나서며 크게 외쳐 왓,

“무지한 삼대는 들어라. 네 두 형의 혼백이 우리 진중에
감히어 나가지 못하고 주야로 울려 애통하되 ‘소장의 동생
삼대의 머리를 마저 바치울 것이니 가공한 혼백을 놓아 주
옵소서.’ 하며 주야로 가공한 소리 진중에 낭자하거늘 네
아무리 살리고자 한들 어찌 살리리오?”

달려들어 바로 삼대의 우편을 쳐들어가니 삼대가 아무
리 왼손으로 칼을 잘 쓴들 우편으로 범하니 기운이 줄
어드는지라. 삼십여 합에 승부를 결지 못하였으나 강장
의 형세가 급한지라, 원수가 진전에서 두 장수의 싸움을
보고 칼을 들고 내달아 삼대의 우편을 쳐들어가니 삼대
가 아무리 재주가 용한들 어찌 창을 한 손으로 쓰리오.
이십여 합에 승부를 가리지 못하더니 문득 강장의 창이
번뜻대며 삼대의 탄 말을 찢러 말이 거꾸러지니 삼대도
땅에 떨어지는지라. 원수가 달려들어 하나 삼대가 공중
으로 솟아 달려들어 싸울새, 원수가 강백과 더불어 급히
치니 삼대가 견디지 못하여 달아나더라. 원수가 말을 달
려 급히 따르며 칼을 들어 삼대의 창 든 손을 치니 삼
대가 놀라 창을 버리고 공중으로 날아 달리거늘 원수가
솟아올라 삼대의 목을 치더라. 일진광풍이 일어나며 문
득 진전에 푸른 안개 일어나고 두 줄 무지개가 공중에
뻗치거늘, 원수가 피이하게 여겨 살펴보니 삼대의 왼팔
밑에 날개가 돋쳐 있더라.

[B]

삼대의 죽을 보고 ㉠적진이 대경 황망하여 일시에 도망하
거늘 원수와 강장이 본진에 돌아와 승전고를 울리니 여러
장수와 군졸이 치하하며 모두 즐기더라.

— 작자 미상, 「조옹전」 —

*경적 : 적을 얕보.

정리

5. [A], [B]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A]는 사건의 압축적 제시와 대화 장면의 제시를 통해 사건 전개에 완급을 조절하고 있다.
- ② [B]는 장면 묘사를 통해 인물의 상상과 현실 사이의 대립을 부각하고 있다.
- ③ [A], [B] 모두 회상을 통해 사건의 면면을 제시하고 있다.
- ④ [A], [B] 모두 편집자적 논평을 통해 현실의 비극성을 드러내고 있다.
- ⑤ [A]는 세속적 공간을, [B]는 초월적 공간을 통해 인물의 내적 갈등을 드러내고 있다.

6. 윗글의 인물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강백’은 의도적으로 ‘삼대’의 감정을 자극했다.
- ② ‘조웅’은 신의보다는 자식으로서의 도리에 이끌렸다.
- ③ ‘삼대’는 자신의 약점을 위장하여 ‘조웅’의 방심을 유도했다.
- ④ ‘부인’은 ‘조웅’이 고백하기 전에 그의 불효한 죄를 알고 있었다.
- ⑤ ‘월경 대사’는 ‘조웅’의 정해진 운명이 드러나는 것을 두려워했다.

7.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기>

「조웅전」에는 흥미를 이끌어내는 요소로 ‘결연’ 모티프와 ‘군담’ 모티프가 주로 사용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결연’ 모티프는 개인적 욕망과 사회적 규범의 긴장 관계 속에서 남녀 간의 인연이 맺어지는 과정을 그린 이야기 단위인데, 천명에 따르거나 주체적 의지에 따라 결연하는 주인공, 결연에 반대 하거나 동의하는 부모, 결연을 합리화하는 장치 등으로 구성된다. ‘군담’ 모티프는 개인의 영웅적 능력이 국가적 위기에서 발휘되는 과정을 묘사한 이야기 단위인데, 조력자의 개입, 강력한 적수의 등장, 역동적 전투 장면 등으로 구성된다.

- ① ‘조웅’은 ‘부인’의 뜻을 먼저 묻지 않고 결연을 주체적으로 결정한 것이겠군.
- ② ‘부인’은 ‘조웅’의 개인적 욕망보다는 사회적 규범을 중시하여 아들의 결연을 합리화하고 있군.
- ③ ‘월경 대사’는 ‘조웅’의 수련을 돕는 것으로 보아 조력자의 역할을 하고 있군.
- ④ ‘조웅’이 지략과 용맹을 발휘하여 싸우는 역동적 장면은 서사적 흥미를 더하는 장치겠군.
- ⑤ ‘삼대’에게 날개가 돋쳐 있는 모습을 서술하여 ‘삼대’가 ‘조웅’의 강력한 적수였음을 보여 주고 있군.

8. ㉠을 가장 잘 나타낸 것은?

- ① 혼비백산(魂飛魄散) ② 경거망동(輕舉妄動)
- ③ 동분서주(東奔西走) ④ 분기탱천(憤氣撐天)
- ⑤ 적반하장(賊反荷杖)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15년 7월

이때 이두병이 스스로 황제가 일컫고 국법을 새로이 하여 각국 열읍에 공문을 보내 벼슬도 올려 주는지라. 여러 신하들이 모여 동궁을 폐하여 외객관으로 내치니, 후궁과 벼슬아치들과 내외궁의 노비 등이 하늘을 부르짖고 땅을 치며 끝없이 슬프고 마음 아파하니 ㉠푸른 하늘이 부르짖는 듯하고 태양도 빛을 잃은 듯하더라. 이때 왕 부인이 이러한 변을 보고 크게 놀라 실색하여,

“마땅히 죽으리로다.”

하며, 주야로 하늘을 향해 빌며 말하기를,

“웅의 나이 팔 세에 불과하니 죄 없는 것을 살려 주소서.”

하며 애걸하니 그 모습을 차마 보지 못하겠더라. 웅이 모친을 붙들고 만 가지로 위로하여 말하기를,

“모친은 불효자식을 생각하지 마시고, 천금같이 귀하신 몸을 보존하소서. 꿈 같은 세상에 유한한 간장을 상하게 하지 마소서. 인생에서 죽는 일 하나만은 제왕도 마음대로 못하옵거늘 어찌 한 번 죽음을 면하오리까? 짐작하옵건대 ㉡이두병은 우리의 원수요, 우리는 그의 원수가 아니오니 어찌 조웅이 이두병의 칼에 죽겠사오리까? 조금도 염려치 마옵소서.”

하며 분기를 참지 못하더라.

이때 이두병이 큰아들 관으로 동궁을 봉하고 국호를 고쳐 평순황제(平順皇帝)라 하고 연호를 새로 고쳐 건무(建武) 원년(元年)으로 삼았다.

이즈음에 송 태자를 외객관에 두었더니, 여러 신하들이 다시 간하여 태산 계량도에 유배하여 주거를 제한하고 소식을 끊게 하였다. 이날 왕 부인 모자가 태자께서 유배되었다는 말을 듣고 망극하여,

“우리 도망하여 태자를 따라 사생(死生)을 한 가지로 하고 싶으나 종적이 탄로나면 이에 앞서 죽을 것이니 어찌하리오?”

하며 모자가 주야로 통곡하더라. 하루는 웅이 황혼의 명월을 보며 원수 갚을 묘책을 생각하더니, 마음이 아득하고 분기탱천(憤氣撐天)한지라. 울적한 기운을 참지 못하여 부인 모르게 중문에 내달아 장안 큰길 위를 두루 걸어 한 곳에 다다르니 여러 사람들이 모두 모여 시절 노래를 부르거늘, 들으니 그 노래는 이러하더라.

국과군망(國破君亡) * 하니 무부지자(無父之子) * 나시도다.

문제(文帝)가 순제(順帝)되고 태평(太平)이 난세로다.

천지가 불변하니 산천을 고칠소냐.

삼강이 불퇴하니 오류를 고칠소냐.

맑고 밝은 하늘에서 소슬히 내리는 비는

신원루(忠臣冤淚) 아니면 소란스럽게 구는 사람의 하소연이로다.

슬프구나 백성들아, 오호에 한 조각배를 타고

사해에 노니다가 시절을 기다려라.

웅이 듣기를 다함에 분을 이기지 못하고 두루 걸어 경화문에 다다라 대궐을 바라보니, 인적은 고요하고 월색은 뜰에 가득한데 오리와 기러기 몇 쌍이 못에 떠 있고, 십 리

나 되는 화원에 전 왕조의 경치와 풍물 아닌 것이 없더라. ㉢전 왕조의 일을 생각하니 일편단심에 굵이굵이 쌓인 근심이 갑자기 생겨나는지라. 조웅이 담장을 넘어 들어가 이두병을 만나서 사생을 결단하고 싶으나 힘이 모자랄뿐더러, 문 안에 군사가 많고 문이 굳게 닫혀 있는지라 할 수 없이 그저 돌아서며 분을 참지 못하여 붓을 넣어 차고 다니던 주머니에서 붓을 내어 경화문에 글자가 잘 보이도록 글자를 크게 써서 이두병을 욕하는 글 몇 구를 지어 쓰고는 자취를 감추어 돌아오더라.

(중략)

이날 밤에 황제가 꿈이 몹시 흉하고 참혹하기에 날이 밝기를 기다려 여러 신하들을 궁궐로 불러 들어 꿈속의 일을 의논할 때, 경화문을 지키던 관원이 급히 고하기를,

“밤이 지나고 나니 문밖에 없던 글이 있기에 옮겨 적어 올립니다.”

황제가 그 글을 보니,

‘송나라 황실이 쇠약하고 미미하니 간신이 조정에 가득하다! 만민이 불행하여 황제의 상이 나셨도다! 동궁이 장성하지 못했으니 소인이 득세하는 때로다! 만고 소인 이두병은 벼슬이 일품이라. 무엇이 부족하여 역적이 되었던 말인가? 천명이 온전하거늘 네 어이 장수하리오. 동궁을 어찌하고 네가 옥새를 전수하느냐? ㉣진시황의 날랜 사슴 입자 없이 다닐 때에 초패왕의 세상 덮는 기운과 범종의 신기한 능력으로도 임의로 못 잡아서 임자를 주었거늘*, 어이할까 저 반적아! 부귀도 좋거니와, 신명을 돌아보아 송업을 끊지 말라. 광대한 천지간에 용납 없는 네 죄목을 조목조목 생각하니 한 줄의 글로도 기록하기 어렵도다.

이 글은 전조 충신 조웅이 삼가 쓰노라.’

하였더라.

황제와 여러 신하들이 보고 나서 놀라며 분기등등하여 우선 경화문 관원을 잡아들여 그때에 잡지 못한 죄로 곤장을 쳐서 내치고는 크게 호령하여 조웅 모자를 결박하여 잡아들이라 하니 장안이 분분한지라. 관원들이 조웅의 집을 에워싸고 들어가니 인적이 고요하고 조웅 모자는 없는지라. 죄인을 다스리는 벼슬아치가 돌아와서 도망한 사연을 황제에게 아뢰니, 황제께서 책상을 치며 크게 노하여 대신을 크게 꾸짖어 말하기를,

“조웅 모자를 잡지 못하면 여러 신하에게 중죄를 내릴 것이니 바빠 잡아 짐의 분을 풀게 하라.”

하니, ㉤여러 신하들이 매우 급하고 두려워하여 장안을 에워싸고, 또한 황성 삼십 리를 겹겹이 싸고 곳곳을 뒤져 본들 별새 삼천 리 밖에 있는 조웅을 어찌 잡으리오.

— 작자 미상, 「조웅전」 —

* 국과군망: 나라가 망하고 임금이 돌아가심.

* 무부지자: 아버지가 없는 아들.

* 진시황의~주었거늘: 진시황이 죽고 초패왕 항우가 그의 용맹함과 비범한 능력을 가진 책사 범증이 있음에도 황제가 되지 못하고 결국 유방이 황제가 된 일을 말함.

정리

9. 윗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왕 부인은 이두병이 황제에 오르자 조웅의 안위를 걱정했다.
- ② 조웅 모자는 송 태자와 사생을 같이 하겠다는 계획을 실행했다.
- ③ 이두병은 송 태자를 대신하여 자신의 큰아들을 동궁으로 봉했다.
- ④ 이두병은 송 태자를 유배 보내자는 신하들의 의견을 받아들였다.
- ⑤ 이두병은 조웅이 쓴 경화문의 글을 보고 조웅을 잡아들이게 했다.

10.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기>

조웅전은 나무판에 글자를 새겨 찍어낸 방각본 소설로 여러 판본의 작품들이 남아 있다. 이 작품에는 선의 회복을 추구하는 작가와 수용자의 욕망이 내재되어 있어 당시 독자들에게 인기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 작품의 주인공은 영웅의 모습으로 그려지며, 악을 물리치고 태평한 질서를 회복하려는 선의 욕망을 지닌 인물이다. 반면 반역을 꾀하는 인물들은 악의 욕망을 지닌 선의 욕망을 지닌 인물들과 대립하고 갈등한다.

- ① 이두병이 황제의 자리에 올라 송 태자를 내쫓는 모습에는 악의 욕망이 드러나 있군.
- ② 원수 갚을 모책을 생각하는 조웅의 모습에는 악에 맞서려는 선의 욕망이 나타나 있군.
- ③ 여러 사람들이 부른 '시절 노래'에는 선의 회복을 추구하는 작가와 수용자 층의 욕망이 반영되었다고 볼 수 있군.
- ④ 조웅이 경화문에 쓴 글에는 악을 물리치고 태평한 질서를 회복하고 싶은 조웅의 욕망이 내재되어 있군.
- ⑤ 경화문에 글을 쓴 조웅을 잡지 못하는 관원들의 모습에서 악이 선의 세력에 의해서 축출되었음을 알 수 있군.

11. ㉠~㉤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 새로운 황제의 등극에 대한 여러 사람들의 슬픔을 비유적 표현으로 드러내고 있다.
- ② ㉡: 이두병과의 싸움의 결과를 회의적으로 전망하는 조웅의 심리를 대조를 통해 드러내고 있다.
- ③ ㉢: 자신의 능력을 알아주지 않는 새로운 황제에 대한 조웅의 원망을 서술자가 직접 제시하고 있다.
- ④ ㉣: 이두병이 황제가 된 것은 하늘의 뜻이었음을 고사(古事)를 인용하여 드러내고 있다.
- ⑤ ㉤: 이두병을 속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신하들의 모습을 편집자적 논평으로 드러내고 있다.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11년 6월

이때 태수 설인수는 원수(元帥)를 가까이에서 모셨으며, 원수는 설인수인 줄 아나 인수는 경작이 원수가 되었음을 생각지 못하더라. 원수가 아는 체하고자 하되, 군영(軍營)이 요란하여 사사로운 정을 펴지 못하였더니, 이제 번왕 남곡을 평정하고 군영이 고요한데 인수 홀로 모셨더라. 원수가 저의 물러가지 않았음을 보고 시동을 불러 당상으로 청한대, 태수 사양하여 오르지 않거늘 원수가 친히 이끌고 가로되,

“인수 형이 능히 경모를 모르오?”

“소관(小官)이 정신이 밝지 못하고, 일찍 면식이 없으니 알지 못하겠사옵니다.”

원수가 잠소(潛笑) 왈,

“형이 과연 눈이 무디다 하리로다. 옛날 금주에서 소 먹던 목동이었다가 양 승상의 둘째 사위가 된 이경작을 모르오?”

태수가 생각 막이라. 깨닫지 못하여 가로되,

“그 사람은 소관의 동서러니, 금주를 떠난 지 벌써 십일 년이읍니다.”

“십일 년 못 보던 경작이 곧 나이니 형은 모름지기 의아치 마오.”

설 태수가 어지러운 듯, 취한 듯하여 오래 말을 못 하더니 이에 자세히 보니 완전한 경작이라. 놀라고 반가움을 이기지 못하여 지위를 잊고 손을 잡아 급히 이르되,

“경작 형! 꿈이오? 생시오?”

원수가 웃으며 왈,

“형은 놀라지 마오.”

하고 인하여 서로 잔을 들어 유쾌히 술을 마시며 정을 펼새, 태수가 매양 원수의 대덕과 넓은 도량, 기이한 풍도를 우러렀더니 이날 자리를 나란히 하여 잔을 날리며 별회를 베풀니, 마음에 세상일을 가히 헤아리기 어려움을 탄하더라. 원수가 문왈,

“외방에 있는 지 벌써 십일 년이라. 처형은 평안하시오?”

설 태수가 답소(答笑) 왈,

“나는 비록 약한 남자이나 조강지처를 무단히 버리지 아니하니 몸이 편하여 자녀를 갖추어 두었거니와, 형은 약한 부인을 무단히 버리고 십일 년에 이르도록 한 번 편지를 부치는 일이 없었소. 이제 몸이 으뜸 벼슬로 부귀영광이 비길 곳이 없고, 어진 덕과 넓은 덕을 추앙하지 않는 사람이 없되, 오직 빈 방의 약한 부인을 생각하지 아니하니 박덕함이 심하여 장차 약한 부인이 몸을 보존치 못하게 되었으니 가장 어둡고 무심한 장부라. 나는 비록 벼슬이 낮아 형을 모시고는 있으나 처자를 편히 거느리니 가히 형보다 낫다고 이르리로다.”

하고 대소한대, 원수가 또한 웃고 왈,

“형이 어찌 괴이한 말로써 나를 조롱하오? 가장 가소롭도다. 그러하나 금주의 처가는 평안하시오?”

태수 왈,

“집안은 평안하나 형의 부인이 병이 위중하여 속수무책 조석으로 목숨을 빈다 하니 형이 비록 몸이 영귀하나 무엇이 즐거우리오?”

원수가 듣고 놀라 얼굴을 붉히며 왈,

“과연 형의 말이 옳소?”

“비록 농담이라도 어이 큰 말에 허언을 하리오?”

“목숨의 길고 짧음과 부귀빈천은 하늘에 달렸으니 인력으로 어찌 하리오?”

“형이 곧 경사(京師)*로 가리니, 길이 금주로 지날 것이니 들러 감이 어떠하오?”

“부모 묘소가 게 있으니 들르지 아니리오?”

“어느 때에 경사로 향할 것이오?”

“백성이 어지러웠으니 서너 달 더 머물러 위로하고 가려 하오.”

“내 관아가 비록 작으나 수일 후 형을 전송하리니 벼슬이 높다고 사양하지 마오.”

원수가 소왈,

“본디 음식을 즐기는 사람이라. 주는 것을 사양할 리 있으오? 먹는 양을 알아서 큼직이 준비하오. 내 당당히 가겠소.”

태수가 소왈,

“벼슬이 높으니 이제 그 술하게 자던 잠과 둔하게 많이 먹던 양을 줄이는 것이 좋을까 하오.”

원수가 대소 왈,

“급제한 후는 더 많이 먹히더이다.”

태수가 소왈,

“내가 양식이 부족하여 풍성하지 못하니 형의 양에 차게 하려면 필연 죄를 면치 못하리니 올 적에 말총으로 창자를 졸라매고 오오.”

“늘릴 수 있을 만큼 늘리고 가겠소.”

“그럴진대 아예 오지 말라 할 것이오.”

“국법이 본래 나 같은 사람을 각 도에서 영접하고 잔치하고 공경하고 관대하라 하였으니 적게 못할 것이오.”

두 사람이 대소하고 설 태수 돌아와 부인 난주를 대하여 이 원수의 전후 일을 일일이 전하고 기특히 여김을 마지않으며, 돌아가신 장인의 사람 보는 눈이 뛰어남에 못내 감복하더라.

— 작자 미상, 「낙성비룡(洛城飛龍)」—

* 경사 : 나라의 수도.

정리

12. 위 글의 표현상의 특징과 효과로 적절한 것은?

- ① 설의적 표현을 통해 사건의 결말을 암시하고 있다.
- ② 독백을 통해 인물의 내면적 성찰을 드러내고 있다.
- ③ 상징적 소재를 통해 인물 간의 관계를 암시하고 있다.
- ④ 심리 묘사를 통해 인물의 고조된 감정을 드러내고 있다.
- ⑤ 격의 없는 대화를 통해 인물 간의 친밀감을 드러내고 있다.

13. <보기>의 ㉠~㉣ 중, 위 글에서 확인할 수 있는 내용만을 모두 고른 것은?

<보기>

「낙성비룡」은 조선 왕실에서 향유되었던 낙선재본 소설이다. 이 작품은 영웅소설인 「소대성전」과 내용이 유사하다고 평가되고 있다. 이 두 작품의 주인공은 모두 다음과 같은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

- 신이한 태몽을 가지고 탄생한다.
- 어려서 부모를 여의고 고생한다.
- 인물됨을 알아보는 장인 될 사람을 만난다.㉠
- 한때 잠을 많이 자는 모습을 보인다.㉡
- 장모의 구박으로 처가를 나온다.㉢
- 수련을 거쳐 전쟁에서 공을 세운다.㉣
- 아내와 해후하여 행복하게 산다.

- ① ㉠, ㉡ ② ㉡, ㉢ ③ ㉢, ㉣
- ④ ㉠, ㉡, ㉢ ⑤ ㉡, ㉢, ㉣

14. [A]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처자식을 중시하는 태도가 나타나 있다.
- ② 어질고 넓은 상대방의 인품을 칭송하고 있다.
- ③ 처제를 안타깝게 생각하는 마음이 드러나 있다.
- ④ 손윗사람으로서 상대방의 잘못된 처신을 지적하고 있다.
- ⑤ 벼슬이 낮은데도 불구하고 자기 생각을 당당히 말하고 있다.

15. 위 글에 드러난 상황을 한자 성어를 이용하여 표현할 때,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경모가 11년 만에 돌아온 것은 수구초심(首丘初心)이라고 할 수 있어.
- ② 경모와 설 태수가 다시 만난 것은 오월동주(吳越同舟)라고 할 수 있어.
- ③ 경모가 설 태수에게 국법을 운운한 것은 정말 적반하장(賊反荷杖)이야.
- ④ 설 태수가 경모를 보고 놀란 것은 경모가 환골탈태(換骨奪胎)했기 때문이야.
- ⑤ 설 태수와 경모가 서로 과거의 일을 이야기한 것은 온고지신(溫故知新)의 대표적인 예야.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15년 9월 고2

원수가 몸이 곤하여 침석(寢席)에 의지하였더니 비몽사몽간에 한 노승이 와 이르되,
“원수는 무슨 잠을 이리 자느냐? 승상의 목숨이 경각에 달렸으니 바빠 구하소서.”

하거늘, 놀라 깨달으니 한바탕 꿈이라.

즉시 절도사를 청하여 전후 말을 이르고 진번 가는 거리를 물으니 천여 리라 하거늘, 마음이 바빠 급히 말을 몰아나오니 벌써 동방이 밝고 일색(日色)이 비치는지라. 울적한 회포와 무궁한 화를 이기지 못하여 풍우같이 달려갈새, 벌써 오시(午時)가 되었는지라. 진번에 다다라 산 위에 올라 보니 어떤 노인을 밧줄로 묶어 수레에 싣고 나오니, 명패에 썼으되, ‘대국 반적 곽충국이라.’ 하였거늘, 그제야 부친인 줄 알고 한편 슬프고 화가 치미는지라. 급히 둔갑을 하여 몸을 다섯 만들어 각각 갑주와 장검을 들고, 육정육갑(六丁六甲)*을 외워 천지 풍운을 일으키고 화살과 돌을 날리며 신장(神將)으로 군영을 습격하여 죽이게 하고 삼백육십 명의 사천왕을 불러 ‘좌우에 웅위하라.’ 하고 말을 몰아 적소검을 들고 큰 소리로 왈,

“무도한 역적은 나의 부친을 해(害)치 말라.”

하고 좌충우돌하니, 진번 장졸이 사방으로 흩어져 달아나는지라.

원수가 적소검을 날려 좌우 무사를 베고 승상을 구하여 안전한 곳에 모시고 통곡 왈,

“부친은 정신을 진정하소서. 불초자 해룡이 왔나이다.”

하니, 승상이 혼미 중에 해룡이란 말을 듣고 손을 잡고 눈물을 흘려 왈,

“네 해룡이라 하니 반갑기 측량없고 슬프기 무궁하다. 네 어찌 알고 와서 나를 구하며 너의 모친도 평안하시냐? 전후사연을 말하라.”

㉠ 원수가 여쭙오대, 부친이 귀양가신 후 소자가 모친을 피시키고 있삽더니, 부친을 뵈옵고저 모친을 하직하옵고 유배지로 향하옵다가 두문동에서 두 자사와 시랑을 만나던 말이며, 또 스승을 만나 술법 배운 말이며, 서번을 물리치고 부친의 귀양을 풀어주라는 천자의 명을 받아 공문을 가지고 설산도로 가다가 부친이 끌려간 소식을 듣고 진번으로 오다가 절도령에서 꿈꾸던 말이며, 모친이 죄인되어 궁중 노비 되었던 말을 세세히 고하니, 승상이 듣기를 다 마침에 목메어 울며 왈,

“내 늦게야 너를 낳아 이다지 장성하여 국가 사직을 보호하고, 나를 풀려나게 하고, 또 오늘날 화(禍)를 면케 하니 어찌 하늘이 감동하시고 부처가 지시한 바가 아니리오?”

하며, 등을 어루만져 왈,

“지금 진번이 강성하여 토번과 합세하여 철관도사로 모사(謀士)를 삼고 목특으로 선봉을 삼아 중원을 치고자 하여 나를 붙잡아 달래어 너를 유인하고자 하매, 내 듣지 아니하고 오늘 이 지경을 당하였거니와, 적장 목특은 만고명장이라, 부디 가법게 여기지 말라.”

하며 못내 반기며 비회(悲懷)를 금치 못하거늘, 원수가 왈,

“부친은 안심하소서. 소자가 비록 무재(無才)하오나 적장

은 두렵지 아니하나이다.”

하고, 칼을 들고 나서며 크게 외쳐 왈,

“진번왕은 내 칼을 받으라. 금일 너희를 물리치고 부친의 분(忿)을 씻으리라.”

하고 신장(神將)을 불러내어 함께 달려드니, 진번왕이 뜻밖에 신장을 만나매 몹시 놀라 한편 백마를 잡아 피를 사면에 뿌리고 풍백을 불러 풍운을 씻어 버리며, 제장 군졸을 불러 진을 치게 하고, 좌우에 생사문을 내고 진 앞에 숙정패(肅靜牌)*를 내어 꽂고 군호(軍號)를 정제하며 선봉 목특을 불러 싸움을 돈우거늘, 원수가 살펴보니 군음이 철통 같고 풍운이 절로 그치니 신장이 접전치 못하는지라. 해룡이 마음에 헤오되, ㉡ ‘내 술법을 당할 자가 없더니 오늘날 진번에 이르러 나를 항거하고 신장을 물리치며 팔진도를 벌이니 실로 웅천도사의 말이 옳도다. 내 재주를 다시 행하리라.’ 하고 비를 뿌리니 사면이 다 바다가 되어 물이 넘치는지라. 원수가 몸을 솟구쳐 공중에 올라 외쳐 왈,

㉢ “너의 조그마한 재주와 용맹으로 어찌 나를 당하리오?”

하며 적소검을 드니, 화광이 충천하며 뇌성벽력이 진동하는지라.

철관도사가 대경하여 선봉 목특으로 나가 싸우라 하니, 목특이 말을 달려 외쳐 왈,

“적장 해룡은 헛장담 말고 빨리 항복하라. 너를 진중에 가두었으니 무슨 근심이 있으리오?”

하며 달려들거늘, ㉣ 원수가 바라보니 키는 십 척이요, 몸은 맹호 같고 얼굴은 먹을 갈아 부은 듯하고 소리 웅장하여 짐짓 일대호걸이요, 만고명장이라. 심중에 헤아리되 ‘철관도사 신통이 이러하고 또 적장이 용맹하니 쉽사리 잡지 못할지라. 이제 검술로 잡으리라.’ 하고, 적진을 살펴본 후에 적소검을 들고 목특으로 더불어 싸울새 짐짓 적수라. 삼백여 합에 승부를 결지 못하고 또한 화살과 돌이 비 오듯하니 원수가 가장 위급한지라. 가만히 진언을 외워 몸을 삼백에 나눠 적진을 짓치고자 하더니, 적장이 또한 진언을 염하여 삼백 해룡을 막는지라. 종일토록 싸우다가 승부 없고 또한 기갈이 심한지라. 가만히 진언을 염하여 혼백을 감추고 변신하여 깃발을 적진에 던지니 완전히 원수라. 적장이 깃발과 싸울 적에 원수는 진 밖에 나와 녹림산으로 돌아오니 승상께서 묻기를,

“네 적진을 보니 어떠하더뇨?”

원수가 대답하기를,

㉤ “소자가 세상에 횡행(橫行)하여 대적할 자가 없더니, 오늘날 목특의 검술과 도사의 재주를 보니 실로 뛰어난지라. 천자의 구원병을 기다려 싸우고자 하나이다.”

하니, 승상이 염려함을 마지아니하더라.

[뒷부분의 줄거리] 원수는 녹림산을 떠나 전날 스승이 준 편지대로 부처와 용왕에게 제를 지낸다. 제를 통해 도력을 높인 원수는 구원병과 함께 적을 섬멸한다. 이후 부친의 원한을 풀고 모친과 재회한 원수는 훗날 위왕으로 봉해진다.

- 작자 미상, 「곽해룡전」 -

* 육정육갑: 둔갑술을 할 때 부르는 신장(神將)의 이름.

* 숙정패: 군령을 집행할 때 조용히 만들기 위해서 세우는 나무패.

정리	
----	--

16.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초현실적 요소를 삽입하여 흥미를 높이고 있다.
- ② 시간의 흐름에 따른 사건의 추이를 보여주고 있다.
- ③ 위험을 예고하는 꿈을 통해 다음 사건을 진행시키고 있다.
- ④ 장면의 구체적인 묘사를 통해 사건의 긴박감을 고조시키고 있다.
- ⑤ 천상과 지상의 공간을 교차하여 사건의 인과 관계를 밝히고 있다.

17.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과거 사건을 요약적으로 제시하여 인물이 궁금해 하는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 ② ㉡: 인물의 내면을 직접 제시하여 외부 도움을 요청할 만큼 매우 위급한 상황임을 드러내고 있다.
- ③ ㉢: 상대를 얄잡아보는 발언을 통해 인물이 자신감을 드러내고 있다.
- ④ ㉣: 인물의 시선을 통해 상대의 외양에 대한 주관적 판단을 드러내고 있다.
- ⑤ ㉤: 과거와의 대비를 통해 현 상황에 대한 대처 방법을 결정하고 있다.

18. <보기>는 윗글의 내용을 도식화한 것이다. A, B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A: 1차 전투 아버지를 구출하기 위한 싸움	→	B: 2차 전투 진변을 물리치기 위한 싸움
--------------------------------	---	-------------------------------

- ① A에서 분기충천(憤氣衝天)한 '해룡'은 둔갑술을 발휘하고 풍운을 일으켜 적진에 있는 부친을 구한다.
- ② A에서 '해룡'의 갑작스런 공격으로 진변 군사들은 전의를 잃고 혼비백산(魂飛魄散)하여 달아난다.
- ③ B에서 '진변왕'은 진영을 정비하여 건곤일척(乾坤一擲)의 자세로 '해룡'과의 싸움에 임한다.
- ④ B에서 '해룡'은 사방을 물바다로 만든 후 승승장구(乘勝長驅)하며 적진을 공격한다.
- ⑤ B에서 '해룡'은 적의 선봉인 '목특'과 싸움을 벌이며 난형난제(難兄難弟)의 재주를 겨룬다.

19.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영웅군담소설에서 탐색 구조는 결여의 발생과 이를 극복하려는 여정을 통하여 충족에 이르는 '결여-탐색-충족'으로 이루어져 있다. 결여는 안정된 상태에 있던 주인공에게 결핍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며, 탐색은 이러한 결핍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이다. 충족은 결핍 상황이 해소되어 다시 안정된 상태로 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탐색 구조는 작품 전체에서 반복되기도 하며, 최종적으로 영웅이 위업을 달성함으로써 완결된다.

- ① 진변의 장수 목특과의 대결은 탐색의 시간을 연장시킨다.
- ② 꿈속에서 만난 노승으로 인해 충족에 이르는 시간이 단축된다.
- ③ 해룡에게 부친과의 이별은 결여이므로 부친과의 상봉은 충족으로 볼 수 있다.
- ④ 모친이 궁중 노비가 된 것은 탐색 과정 중 겪는 또 다른 결여로 볼 수 있다.
- ⑤ 해룡이 비범한 능력을 얻기 위해 스승에게 술법을 배우는 것은 충족에 해당한다.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13년 수능

막 씨 졸연 복통이 있어 마치 태중에 아이 놀 듯하여 점점 불려 오거늘 심히 괴이히 여겨 행여 남이 알까 근심하더니, 십 삭에 미치는 산점*이 있어 ㉠초막(草幕)에 엎드려더니, 해산하고 돌아보니 아이는 아니요, 금방울 같은 것이 금광이 찬란하거늘, 막 씨 대경하여 괴이히 여기며 **손으로 누르되** 터지지 아니하고 **돌로 깨쳐도** 깨어지지 아니하거늘, 이에 집어다가 멀리 버리고 돌아보니 금방울이 굴러 따라오는지라. 더욱 의심하여 집어다가 **깊은 물에** 들이치고 돌아오니 금방울이 물 위에 가볍게 떠다니다가 막 씨의 가는 양을 보고 **여전히 굴러 따라오는지라**.

막 씨 해아리되,

‘나의 팔자 기구하여 이 같은 괴물을 만나 타일에 이로 인하여 반드시 큰 화근이 되리로다.’

하고 불 썰 때에 **아궁이**에 들이켰더니, 닳새 후에 헤쳐 본즉 금방울이 뛰어나오되 상하기는커녕 새로이 금빛이 더욱 짙어지고 ㉡향내 진동하거늘, 막 씨 하릴없이 두고 보니 밤이면 품속에 들어 자고 낮이면 굴러다니며 혹 칩떠나는 **새도 잡고** 나무에 올라 과실도 따 가지고 와 앞에 놓으니, 막 씨 자세히 본즉 속에서 실 같은 것이 온갖 것을 묻혀 오되 그 털이 출입이 있어 평시에는 반반하고 뵈지 아니하거늘, 추위를 당하여도 방울이 굴러 품에 들면 조금도 춥지 아니하여 엄동설한에 한데서 남의 방아를 찧어 주고 저녁에 초막으로 돌아오니 방울이 굴러 막에서 내달아 반기는 듯 뛰놀거늘 막 씨 추위를 견디지 못하여 막 속으로 들어가니 그 속이 놀랍게 더우며 방울이 빛을 내어 밝기 낮 같거늘, 막 씨 기이히 여겨 남이 알까 저어하여 낮이면 막 속에 두고 밤이면 품속에 품고 자더니, 방울이 점점 자라매 **산에 오르기를 평지같이 다니며** 진 데와 마른 데 없이 굴러다니되 몸에 흠이 묻지 아니하더라.

[중략 줄거리] 금방울을 탐내다 뜻을 이루지 못한 자가 금방울이 요괴롭다고 비방한다. 이에 고을 수령인 장 공은 막 씨를 잡아서 금방울을 제압하고자 하나, 오히려 금방울이神通력을 발휘하여 장 공은 먹고 자는 것조차 여의치 않게 된다.

부인이 막 씨 놓음을 권하니 장 공이 깨닫고 즉시 막 씨를 놓으니 그날부터 침식이 여전한지라. 장 공이 막 씨의 효행을 듣고 크게 뉘우쳐 초막을 헐고 그 터에 크게 집을 지으며 ㉢정문(旌門)*을 세워 잡인을 금하고 달마다 월음*을 주어 일생을 편안케 하니라.

차설. 장 공이 뇌양에 온 후로 몸이 평안하나 주야 해룡을 생각하고 부인으로 더불어 슬퍼하더니, 부인이 이로 인하여 침식에 위독하여 백약이 무효하매 공이 주야 병측을 떠나지 아니하더니, 일일은 부인이 공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려 왈,

“침의 팔자 기박하여 한 날 자식을 난중(亂中)에 잃고 지금 보전함은 요행 생전에 만나 볼까 하였더니 십여

[A]년 존망을 모르매 병입골수하여 명이 오늘뿐이라. ㉣구천에 돌아간들 어찌 눈을 감으리오? 바라건대 공은 길이 보충하소서.”

하고 인하여 명이 진하니, 장 공이 낫을 대고 애통하여 자로 기절하매 좌우가 붙들어 구호하더니, 밖에서 방울이 굴러 부인 시신 앞으로 들어가거늘, 모두 보니 풀잎 같은 것을 물어다 놓고 가는지라. 급히 집어 보니 나뭇잎 같은 것이로되 가늘게 켜오되 ‘**보은초(報恩草)**’라 하였거늘, 공이 대희 왈,

“이는 막 씨가 보은한 것이로다.”

하고, 그 풀을 부인 입에 넣으니, 식경 후에 부인이 몸을 운동하여 돌아눕거늘, 좌우가 울음을 그치고 수족을 주무르니 그제야 부인이 숨을 길게 쉬는지라. 공이 병을 물은대, 부인이 자고 나매 정신이 썩썩하다고 대답하니, 공이 대열하여 방울의 수말*을 다하고 못내 기뻐하더라.

그 후로 부인의 병세 과연 평복되니 부인이 친히 막 씨의 ㉤집에 가 재생지은(再生之恩)을 만만사레하고 맺어 형제되매, 그 후로는 방울이 굴러 부인 앞에 오거늘 장 공 부부 사랑하여 손에 놓지 아니하니, 방울이 아는 듯 이리 안기며 저리 품기어 영민함이 사람 뜻대로 하는지라, 이름을 ㉥‘**금령(金鈴)**’이라 했다.

— 작자 미상, 「금방울전」—

* 산점 : 해산의 기미.

* 정문 : 충신·효자·열녀 등을 표창하기 위해 집 앞에 세우던 붉은 문.

* 월음 : 매달 주는 돈이나 물품.

* 수말 : 일의 처음부터 끝.

정리

20. [A]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서술자가 주인공으로 등장하여 자신의 체험을 사실적으로 서술하고 있다.
- ② 요약적 서술과 등장인물의 말을 통해 사건의 경과를 드러내고 있다.
- ③ 인물 간의 갈등 양상을 통해 불신의 감정을 표현하고 있다.
- ④ 배경 묘사를 통해 인물의 내면 심리를 표출하고 있다.
- ⑤ 부정적 인물에 대한 비판 의식을 표현하고 있다.

21.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 막 씨의 당시 처지를 보여 주는 공간이다.
- ② ㉡ : 금방울의 신이한 면모를 보여 준다.
- ③ ㉢ : 막 씨의 효행에 대한 사회적 보상을 상징한다.
- ④ ㉣ : 막 씨와 장 공 부인의 갈등이 심화되는 공간이다.
- ⑤ ㉤ : 금방울이 존재 가치를 인정받았음을 보여 준다.

22.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금방울전」은 비정상적인 모습으로 태어난 주인공이 온갖 고난과 시련을 극복한 후, 방울을 깨고 사람으로 변신하는 과정을 그리고 있다. 금방울은 태어나자마자 어머니로부터 시련을 겪지만, 방울의 모습을 한 채로 자신의 의지를 지니고 다양한 능력을 발휘한다. 또 주인공이면서도 타인을 돕는 조력자로서의 모습을 강하게 지닌다.

- ① 막 씨가 금방울을 ‘손으로 누르’고 ‘돌로 깨’는 것은 금방울의 변신을 돕기 위한 행동이다.
- ② 막 씨가 금방울을 ‘깊은 물’과 ‘아궁이’에 들이치는 행위는 어머니에 의한 금방울의 시련을 형상화한 것이다.
- ③ 막 씨가 금방울을 거둬 버려도 ‘여전히 굴러 따라오는’ 것은 금방울의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 ④ 금방울이 ‘나는 새도 잡고’ ‘산에 오르기를 평지같이 다니’는 것 등은 금방울의 다양한 능력을 보여 준 것이다.
- ⑤ 금방울이 ‘보은초’를 구해 와 장 공의 부인을 살려 내는 것은 조력자로서의 성격을 보여 주는 것이다.

23. ㉤의 상황을 나타내는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1점]

- ① 각골통한(刻骨痛恨) ② 구사일생(九死一生)
- ③ 사필귀정(事必歸正) ④ 순망치한(脣亡齒寒)
- ⑤ 연목구어(緣木求魚)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08년 9월 고1

해룡이 남쪽으로 가는데 한 곳에 다다르니 큰 산이 앞길을 막았거늘, 갈 길을 못 찾아 주저할 즈음에 금령*이 굴러 길을 인도하였다. 금령을 따라 여러 고개를 넘어가니 절벽 사이에 푸른 잔디와 암석이 적어 편하였다. 해룡이 돌 위에 앉아 쉬고 있었는데, 문득 벽력 소리가 진동하며 금터럭 돌힌 괴이한 짐승이 주홍 같은 입을 벌리고 달려들어 해룡을 물려 하였다. 해룡이 급히 피하려 하였는데 금령이 내달아 막으니, 그것이 몸을 흔들어 변하여 머리 아홉 가진 악귀가 되어 금령을 집어 삼키고 골짜기로 들어갔다.

해룡이 크게 놀라 낙담하여 말하기를,

“분명코 금령이 죽었도다.”

하고 탄식하여 어찌할 줄 몰랐다.

홀연 한 바탕 미친 듯한 바람이 일어나며 구름 속에서 크게 불려 말하기를,

“그대는 어찌 금령을 구하지 아니하고 저다지 방황하느냐?”

하고 문득 간 데 없었다.

해룡이 생각하되,

‘하늘이 가르치시나 몸에 쇳조각 하나 없으니 어찌 대적하리오? 그러나 금령이 아니었다라면 내가 어찌 살아났으리오?’

하고 옷차림을 단단히 하고 골짜기로 뛰어 들어가니 지척을 분별할 수 없었다. 몇 리를 들어가되 종적이 없거늘, 죽을 힘을 다하여 기어 들어가니 홀연 천지가 명랑하고 일월이 조요하였다. 두루 살펴보니 돌비석에 금자로 새겼으되,

㉠ ‘남전산 봉래동’

이라 하였고, 구름 같은 석교 위에 만장폭포가 거룩하였다. 그곳을 지나 들어가서 문을 활짝 여니 주궁궐(珠宮貝闕)*과 내성외곽이 은은히 뵈거늘, 자세히 본즉 문 위에 금자로 크게,

‘금선수도부’

라 써어 있었다.

원래 악귀는 천지개벽 후에 일월의 정기로 생겨나서 득도하여 신통이 거룩하고 재주가 무궁하였다. 해룡이 문밖에서 주저하며 감히 들어가지 못하는데, 이윽고 안에서 여러 여자들이 나오거늘 해룡이 급히 풀 사이에 몸을 숨겨 동정을 살폈다. 여자들이 시냇가에서 피 묻은 옷을 빨며 서로 말하되,

“우리 대왕이 전일에는 신통이 거룩하여 당할 자 없더니 오늘 나가시더니 홀연 속을 앓아 피를 무수히 토하고 기절하니, 그런 신통으로도 이런 병을 얻었으니 일찍 나으면 좋으려니와 만일 오래 낫지 않으면 우리들의 괴로움이 되리도다.”

하였다.

그 중 한 여자가 말하기를,

“우리 공주 낭랑이 간밤에 ㉡ 꿈을 꾸니 하늘에서 선관이 내려와 이르되, ‘내일 오시에 수재 한 사람이 이곳에 들어와 악귀를 잡고 그대를 구하여 고국에 돌아가게 할 것이다. 이 사람은 동해 용왕의 아들이로서 그대와 인연이 있

니 그대가 이리 됴도 또한 천수라. 부디 천명을 어기지 말라’ 당부하고, ‘누설하지 말라’ 하시더니, 오늘 오시가 되도록 소식이 없으니 그런 꿈도 허사인가 하노라.”

하고 눈물을 흘리며 말하기를

“우리도 언제 이곳을 벗어나 고국에 돌아가 부모를 만나 뵈올고.”

하며 슬피 탄식하였다.

해룡이 이 말을 듣고 즉시 풀을 헤치고 내달으니, 그 여자들이 놀라 달아나려 하였다. 해룡이 만류하여 말하기를, “그대들은 놀라지 말라. 내가 악귀를 없애고자 여기 들어왔으니 그 악귀가 있는 곳을 자세히 가르치라.”

그 여자들이 이 말을 듣고 공주 낭랑의 꿈을 생각하매 신기하였다. 이에 나아가 울며 아뢰기를,

“그대 덕분에 우리들이 살아서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소서.”

하고 해룡을 인도하여 들어가니, 중문은 첩첩하고 전각은 아름다운 곳에 흥악한 짐승이 신음하여 앓는 소리가 들렸다.

해룡이 뛰어 올라가 보니, 그 짐승이 상 위에 누워 앓다가 사람을 보고 일어나려 하다가 도로 자빠지며 배를 움키고 일신을 뒤틀며 움직이지 못하고 입으로 피를 무수히 토하고 거꾸러졌다. 해룡이 이 형상을 보고 악귀를 처치하고자 하나 손에 쇳조각 하나 없었는데, 홀연 미인 한 사람이 붉은 치마를 입고 가볍게 걸어서 벽에 걸린 보검을 갖다가 해룡에게 주었다. 해룡이 급히 칼을 받아 들고 달려들어 악귀의 가슴을 무수히 찌르니, 그 짐승이 그제야 죽어 늘어졌다.

자세히 보니 금터럭 돌힌 흥악한 돼지이거늘 가슴을 헤치고 보니 금령이 굴러 나왔다. 해룡이 크게 반기며 소리 질러 말하기를,

“너희 수십인 여자들이 다 악귀로서 사람으로 변하여 나를 속임이 아니냐?”

모든 여자들이 일시에 끓어 아뢰기를,

“우리들은 악귀가 아니라 우리 팔자 기구하여 몸쓸 악귀에게 잡혀 와 험악한 옥을 보고 수하에서 시중을 들게 되어 죽지도 못하고 이곳에 할 수 없이 있는 사람이로소이다. 아까 보검 갖다 주던 이는 지금 천자의 외동딸 금선공주입니다.”

하였다.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한 미인이 슬픈 기색으로 나아와 사례하기를,

“나는 과연 공주러니, 6년 전에 모후 낭랑을 뵈시고 후원에서 달을 구경하며 즐기다가 이 악귀에게 잡혀 와 시비들이 밤낮으로 지키는 까닭으로 지금까지 죽지 못하고 옥을 참고 살아 왔습니다. ㉢ 천행으로 그대의 구함을 입어 고국에 돌아가 부모를 만나게 되니 이 은혜는 지금 죽어도 한이 없을까 합니다.”

하며 소매로 낫을 가리고 목이 메어 흐느끼거늘 해룡이 자초지종을 다 듣고 슬픔을 이기지 못하더라.

— 작자 미상, 「금방울전」 —

- * 금령(金鈴) : 금방울.
* 주궁패궐(珠宮貝闕) : 진주나 조개 따위의 보물로 호화롭게 꾸민 궁궐.

정리

24.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해룡이 영웅적인 활약을 펼쳐 신분적 평등을 이룩하는 공간이다.
- ② 궁궐과 성곽을 갖춘 것으로 보아 현실 세계를 본뜬 비현실적 공간이다.
- ③ 악귀의 소굴임에도 경계가 뛰어나고 선경의 분위기마저 느껴지는 공간이다.
- ④ 해룡이 힘들게 찾아가는 것으로 보아 현실계의 인간이 쉽게 접근할 수 없는 곳이다.
- ⑤ 잡혀온 공주와 여자들이 악귀로부터 벗어나고 싶어 하는 공간이다.

25. ㉡과 가장 관련 깊은 한자성어는? [1점]

- ① 각골난망(刻骨難忘)
- ② 노심초사(勞心焦思)
- ③ 오매불망(寤寐不忘)
- ④ 학수고대(鶴首苦待)
- ⑤ 풍수지탄(風樹之嘆)

26. <보기>는 위 글의 근원 설화이다. 위 글과 <보기>를 비교하여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옛날 악귀가 임금님의 세 공주를 납치하자, 임금은 누구든 공주를 구해오면 막내딸과 결혼시키겠다고 약속한다. 이 때 무신이 나서서 하인들을 데리고 악귀의 소굴을 찾아 해매는데, 꿈속에 나타난 산신령의 도움으로 악귀의 굴을 찾는 데 성공한다. 지하 소굴로 내려간 무신은 수박으로 변신하여 악귀에게 접근하고 공주들의 도움으로 잠든 악귀를 죽이는 데 성공한다. 그러나 소굴 밖에 있던 하인들의 배신으로 공주만 탈출하고 무신은 굴속에 갇히고 만다. 이 때 산신령이 나타나 말 한 필을 주어서 무신은 그것을 타고 무사히 소굴 밖으로 나오고, 배신한 하인들을 벌한 뒤 막내 공주와 결혼한다.

- 지하국 대적 퇴치 설화 -

- ① <보기>와 달리 위 글에는 하인들의 배신 등과 같은 요소는 없군.
- ② 위 글과 <보기> 모두 악귀를 물리치는 데 공주가 도움을 주고 있군.
- ③ 위 글과 <보기> 모두 중심인물이 악귀의 소굴에서 공주를 구하는 내용이 있군.
- ④ <보기>의 '무신'은 평범한 인물로, 위 글의 '해룡'은 비범한 인물로 나타나 있군.
- ⑤ <보기>의 무신은 '공주'를, 위 글의 해룡은 '금령'을 구하기 위해 악귀의 소굴에 가게 되었군.

27.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앞으로 일어날 일을 제시함으로써, 사건의 전개 방향을 암시하고 있다.
- ② 해룡의 전생 신분을 알려줌으로써, 해룡이 고귀한 존재임을 밝히고 있다.
- ③ 천명을 지켜야 함을 당부함으로써, 해룡과 공주의 인연을 예고하고 있다.
- ④ 비밀을 누설하지 말라는 금기를 제시함으로써, 공주에게 좌절감을 느끼게 하고 있다.
- ⑤ 선관이 내려와 말을 전함으로써, 하늘이 공주를 보호하고 도와주고 있음을 알려주고 있다.

답지

1) ㉔ ⑤ [해설] 조웅은 어머니께 ‘세상을 구경하고 황성 소식도 듣고자’ 한다고 하였다가 거절당한 다음, 다시 월경 대사에게 ‘모친의 마음을 돌려 저의 뜻을 펴게’ 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어머니가 꾸중으로 거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그 뜻을 관철시키는 태도로 보았을 때, 조웅이 어머니의 입장보다 자신의 포부를 앞세우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오답피하기] ① 웅의 거동을 본 철관 대사는 웅이 글쓰고 가는 것을 ‘불쌍하’ 여기고 ‘급히 내려와’ 글을 ‘보기를 다하고 크게 놀라’ 웅을 다시 불러 오게 하고 있다. 철관 대사가 조웅의 자질을 의심하게 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② 왕 부인이 월경 대사에게 한 말에 따르면, 부인은 웅의 입신양명에 대한 희망보다는 웅에 대한 사랑(‘어찌~ 잠시라도 잊을 수 있으며’)과 염려(‘어지러운 세상에 나가 어찌될 줄 알리오.’)가 앞서고 있다. ③ 동자는 조웅에게 ‘정성이 부족’하여 철관 도사를 만나지 못한 것이며, 대사의 ‘중적’을 알 수 없다고 말하고 있다. 동자는 조웅이 도사를 만날 수 없는 상황임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다. ④ 월경 대사는 조웅이 어떠한 곤란에 처하더라도 ‘조금도 걱정할 바가 없을’ 것이라 하여 조웅의 장래를 낙관하고 있다.

2) ㉔ ④ [해설] [A]는 철관 도사를 만나지 못하고 돌아가는 조웅의 안타까운 심정을 노래한 것이므로 주인공의 심리적 경향이 제시되어 있다(ㄴ)고 할 수 있다. ‘십 년을 지내 온 나그네’인 자신이 ‘정성이 모자람’으로 인해 못 만나고 간다는 것이다. 한편 철관 도사가 조웅을 급하게 부르게 된 것은 그 글을 읽고 나서이므로, 그 글은 주인공의 고민이 해소되는 계기가 되었다(ㄹ)고 볼 수 있다.

[오답피하기] ㄱ : 조웅은 미래의 사건을 예언한 것이 아니라, 현재의 심리를 서술하고 있다. ㄷ : 조웅의 위기를 암시할 수 있는 대목은 찾을 수 없다.

3) ㉔ ⑤ [해설] <보기>에 따르면, 소대성과 조웅이 영웅이라는 점에서는 같지만, 두 가지에서 차이를 보인다. 소대성은 ‘외세의 침입으로부터 나라를’ 구했고, 조웅은 ‘간신이 일으킨 반란을 평정해서’ 나라를 구했다. 소대성이 ‘선천적으로 무예와 도술을 지니고 있었’던 반면, 조웅은 ‘스승을 찾아’ ‘긴 수련의 과정’을 겪었다. 따라서 ⑤에서 이 작품이 ‘선천적으로 힘이 주어진 경우’에 해당하는 ‘소대성전’보다 ‘주인공의 현실적이고 강인한 의지’를 부각시킨다고 한 진술을 타당한 진술이다.

[오답피하기] ① ‘등장인물의 수의 증감은 ‘조웅전’에서 확인하기 어렵고, 사건을 다양한 측면이나 시점에서 작품이 서술되었는지의 여부 또한 확인하기 어렵다. ②, ③ 부각하고자 하는 대상이 ‘대사나 도사의 신비한 능력’이라는 설명이 적절하지 않다. ④ 시련이 보다 ‘단계적으로 설정’되는데, ‘사건의 전개 속도를 빠르게’ 되었는지의 여부는 확인하기 어렵다.

4) ㉔ ② [해설] 월경대사의 말은 조웅의 운명을 전혀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①은 그 말과 같지 않게 조웅에게 번고라도 생길 때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우려한 것이다. 이러한 마음을 잘 표현한 것은 ②의 ‘노심초사(勞心焦思)’로 이 말은 ‘근심과 걱정으로 속이 탐’을 의미한다.

[오답피하기] ① 선견지명(先見之明) : 앞일을 미리 내다보는 식견 ③ 식자우환(識字憂患) : 아는 것이 병이다. ④ 시시비비(是是非非) : 옳고 그름을 따짐. ⑤ 적반하장(賊反荷杖) : 도둑이 도리어 몽둥이를 든다.

즉, 잘못을 한 사람이 도리어 화를 낸다는 뜻.

5) ㉔ ① [해설] ‘이때 대사가 웅을 데리고 신통한 술법을 의논하더니 이리구러 삼 년이되었는지라.’와 같이 사건을 압축해서 제시한 장면에서는 사건이 빠르게 전개되고 있으며, 인물끼리 대화를 주고받는 장면에서는 사건이 느리게 전개되고 있다.

[오답피하기] ② [B]에서는 모두 현실 속에서 일어난 장면이 묘사되고 있으므로, 인물의 상상과 현실 사이의 대립은 찾을 수 없다. ③ [A]와 [B]에는 모두 회상 장면이 나타나 있지 않다. ④ 현실의 비극성을 드러내는 편집자적 논평은 [A]와 [B]에서 모두 찾을 수 없다. ⑤ [A], [B]에는 모두 현실적인 한계를 뛰어넘은 초월적인 공간이 드러나 있다고 보기 어렵다.

6) ㉔ ① [해설] ‘강백’은 일부러 삼대를 흔들어 놓기 위해 두 형의 혼백에 대해 언급하며 ‘삼대’의 감정을 자극하고 있다.

[오답피하기] ② ‘선생’께 기약을 정하고 왔으므로 슬하를 잠깐 떠나겠다고 하는 것으로 보아, 조웅이 신의보다 자식으로서의 도리에 이끌렸다고 보기는 어렵다. ③ 조웅은 삼대의 약점을 파악하여 강백에게 삼대의 우편만을 공격할 것을 명하고, 자신도 우편만을 공격하고 있다. 이것으로 보아 삼대가 자신의 약점을 위장하여 조웅의 방심을 유도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④ 조웅이 었드려 불효한 죄를 청하니 부인이 크게 놀랐다고 하였으므로, 부인이 조웅의 죄를 미리 알고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⑤ “부인은 소송이 전에 드린 말씀을 이제야 증험한 줄을 아시나이까?”를 통해 월경 대사가 부인에게 조웅의 미래에 대해 미리 말해 주었음을 알 수 있다.

7) ㉔ ② [해설] 부인은 조웅과 장 소저의 결연이 천명에 따른 것이라는 근거를 내세워 합리화하고 있다. 또한 자신들이 처한 형세의 어려움을 들어 예절을 차릴 수 없다는 점도 말하고 있다. 따라서 개인적 욕망보다 사회적 규범을 중시하였다는 감상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피하기] ① 조웅은 ‘부인’의 허락 없이 장 소저를 취하게 된 사연을 말하고 있다. ③ 대사가 웅을 데리고 삼 년에 걸쳐 신통한 술법을 의논하였다고 한 것으로 보아, 대사가 웅의 조력자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다. ④ 조웅이 삼대의 약점을 집중적으로 공격하며 용감하게 싸우는 장면을 통해 조웅의 지략과 용맹을 확인할 수 있다. ⑤ 삼대의 왼팔 밑에 날개가 있다는 것은 삼대가 윈손과 관련하여 비범한 능력을 지녔다는 것을 보여 주는 것이다.

8) ㉔ ① [해설] ③는 삼대의 죽음을 보고 적진이 크게 놀라 허둥지둥거리며 도망가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과 가장 잘 어울리는 한자성어는 몹시 놀라 넋을 잃음을 뜻하는 혼비백산(魂飛魄散)이다.

[오답피하기] ② 경거망동(輕舉妄動) : 경솔하여 생각 없이 망령되게 행동함. ③ 동분서주(東奔西走) : 동쪽으로 뛰고 서쪽으로 뛴다는 뜻으로, 사방으로 이리저리 몹시 바쁘게 돌아다님을 이르는 말. ④ 분기탱천(憤氣撐天) : 분한 마음이 하늘을 찌를 듯 격렬하게 북받쳐 오름. ⑤ 적반하장(賊反荷杖) : 도둑이 도리어 매를 든다는 뜻으로, 잘못된 사람이 아무 잘못도 없는 사람을 나무람을 이르는 말.

9) ㉔ ② [해설] 왕 부인이 송 태자가 폐위되었다는 말을 듣고 “우리 도망하여 태자를 따라 사생을 한 가지로 하고 싶으나 종적이 탄로 나면 이에 앞서 죽을 것이니 어찌하리오?”라고 하는 것을 볼 때, 송 태자와 사생을 같이 하겠다는 계획을 실행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㉔ ④ ‘여러 신하들이 다시 간하여 태산 계량도에 유배하여 주거를 제한하고 소식을

끊게 하였다.'와 송 태자가 유배된 것을 볼 때 송 태자를 유배 보내자는 신하들의 제안을 이두병이 받아들였음을 알 수 있다.

10) ㉠ ⑤ [해설] 관원들은 경화문에 글을 쓴 조웅을 잡지 못했다. 이 부분은 악의 세력과 선의 욕망을 지닌 인물의 갈등을 보여 주는 것이지 선의 세력에 의해서 악이 축출되었음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다. ㉡ ① 이두병은 반역을 통해 황제가 되고 송 태자를 폐하는 모습에서 악의 욕망을 지닌 인물임을 알 수 있다. ② '~원수 값을 묘책을 생각하더니, 마음이 아득하고 분기탱천한지라'에는 악과 대결하려는 조웅의 욕망이 드러나 있다. ④ '동궁을 어찌하고 내가 옥새를 전수하느냐, '신명을 돌아보아 송업을 끊지 말라' 등을 통해 조웅이 악을 물리치고 태평한 질서를 회복하기를 희망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1) ㉠ ① [해설] 이두병이 황제가 되고 송 태자가 폐위당하자 후궁과 벼슬아치들, 내외궁의 노비 등이 하늘을 향해 부르짖고 땅을 치며 슬퍼하고 있다. 이런 마음을 '~듯하고', '~듯하더라'의 비유를 통해 드러내고 있다. ㉡ ② ㉢은 어머니를 안심시키려는 조웅의 태도를 대조를 통해 드러내고 있다. ③ ㉣은 이전 왕조에 대한 일편단심과 현재 상황에 대한 조웅의 근심을 서술자가 직접 제시하고 있다. ④ ㉤은 이두병이 황제가 된 것은 부당한 일임을 고사를 인용하여 드러내고 있다. ⑤ ㉥은 이두병의 명령을 어기게 될까 두려워하는 신하들의 모습과 조웅 모자가 이미 멀리 달아나 잡을 수 없는 상황을 편집자적 논평을 통해 드러내고 있다.

12) ㉠ ⑤ [해설] 제시된 장면은 태수인 설인수와 원수인 경작(경모)이 만나 회포를 푸는 장면이다. 계급으로는 태수가 원수를 모시는 형편이지만, 그들은 계급 이전에 동서 지간이다. 둘 사이에 이러한 인연이 밝혀지면서 극존칭을 쓰던 설인수의 말이 편해지고 둘은 사적인 화제를 중심으로 격의 없는 대화를 이어가고 있다. 서로의 안부와 처의 안부를 물으며 흥도 보고, 위협도 하고 있지만 사실 이는 인물들이 그만큼 친밀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오답피하기] ① 이원수의 앞날이 어떻게 될 지에 대한 암시는 나타나지 않았다. ④ 주로 대화를 통해 상황이 전개되고 있으며, 인물들이 조롱하듯 서로 주고받는 말이 일부 있으나 이는 갈등이 아니라 둘이 허물없는 사이임을 보여준다.

13) ㉠ ① [해설] 마지막 장면에서 설 태수는 돌아와서 부인에게 이원수의 일을 전한 후 돌아가신 장인의 사람 보는 눈이 뛰어나며 감복했다고 했다. 이로 보아 장인은 이원수가 크게 될 인물임을 알아보았음을 짐작할 수 있다(㉡). 후반부에서 태수는 원수에게 '그 술하게 자던 잠과 둔하게 많이 먹던 양을 줄이는 것이 좋을까 하오.'라 했고, 이에 대해 원수는 '급제한 후는 더 많이 먹히더이다.'라 했다. 이로 보아 이원수가 한때 잠을 많이 잤음을 알 수 있다(㉢).

[오답피하기] 설 태수와 이원수의 대화를 통해 이원수는 부인을 두고 집을 나온 지 11년이 되었다고 했을 뿐, 왜 집을 나오게 되었는지는 제시되지 않았다(㉣). 또한 이원수가 어떤 과정을 통해 소 먹이던 목동이었다가 원수가 되었는지의 과정 역시 제시되어 있지 않다.(㉤).

14) ㉠ ② [해설] [A]에서 설 태수는 원수가 약한 부인을 버리고 집을 나간 후 11년 동안 편지 한 번 없이 보낸 행동에 대해 어둡고 무심하다며 질타를 하고 있다. 그러므로 상대방의 인품을 칭송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원수의 넓은 덕을 추앙하는 것은 타인의 평가일 뿐이다.

[오답피하기] ①, ⑤ 나는 비록 벼슬은 낮지만 처자를 편히 거느리니 가

히 형보다 낫다고 한 것에서 알 수 있다. ③, ④ 약한 처제를 홀로 남겨두고 소식조차 없었던 원수의 행동을 탓하고 있는 말에서 알 수 있다.

15) ㉠ ④ [해설] '환골탈태(換骨奪胎)'란 '뼈대를 바꾸어 끼고 태를 바꾸어 쓴다'는 뜻으로, '고인의 시문의 형식을 바꾸어서 그 짜임새와 수법이 먼저 것보다 잘되게 함을 이르거나 사람이 보다 나은 방향으로 변하여 전혀 딴사람처럼 됨'을 이른다. 원수는 11년 전 소 먹이던 목동이었으나, 현재는 한 나라의 원수가 되어 있다.

[오답피하기] ① '수구초심(首丘初心)'은 '여우가 죽을 때 머리를 자기가 살던 굴로 향한다는 뜻으로, 고향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일컫는 말'이다. 경모는 고향에 돌아온 것이 아니고, 수도로 가는 길에 부모 묘소가 있는 고향에 들르겠다고 했다. ② '오월동주(吳越同舟)'는 '사이가 나쁜 사람끼리 같은 장소나 처지에 함께 놓임. 또는 서로 반목하면서도 공통의 곤란 이해에 대하여 협력함'을 비유하여 이르는 말이다. ③ '적반장장(賊反荷杖)'은 '도둑이 도리어 매를 든다는 뜻으로, 잘못된 사람이 도리어 잘한 사람을 나무라는 경우에 쓰는 말이다. ⑤ '온고지신(溫故知新)'은 '옛것을 익히고 그것을 미루어서 새것을 앎'을 이른다.

16) ㉠ ⑤ [해설] 지상에서 해룡이 끈 꿈과 해룡의 전투 장면에 비현실적 인물이 등장하지만 천상과 지상의 공간이 교차하는 것은 아니다. / ① 전투 과정에서 초현실적 요소를 삽입하여 독자의 흥미를 높이고 있다. ② 주인공이 부친을 구출하고 진번과 대결하는 장면을 시간 순서대로 서술하였다. ③ 부친의 위급함을 알려주는 꿈으로 인해 해룡이 아버지를 찾으러 떠나고 진번과 싸워 아버지를 구출한다. ④ 전투 장면을 구체적으로 묘사하여 독자에게 긴장감을 준다.

17) ㉠ ② [해설] ㉠에서 곤란한 상황에 처한 주인공은 스승인 응천도사의 말을 떠올리지만, 스승에게 도움을 요청하지는 않는다.

18) ㉠ ④ [해설] 주인공은 부친과 상봉한 후 부친의 분을 씻기 위해서 진번과 다시 싸움을 벌인다. 그런데 이 싸움에서 진번왕의 만만치 않은 대응을 보며 주인공은 재주를 다시 행하여 사방을 물바다로 만든다. 이런 상황에서 적장인 목특과 만나 싸우면서 화살과 돌이 쏟아져 위급한 상황이 되는 등 종일토록 승부가 나지 않는 상황이므로, '싸움에 이긴 형세를 타고 계속 몰아침'의 의미를 지닌 승승장구(乘勝長驅)는 적절하지 않다. / ① '분기충천(憤氣衝天)'은 '분한 마음이 하늘을 찌를 듯 격렬하게 북받쳐 오름'을 이르는 말이다. ② '혼비백산(魂飛魄散)'은 '혼백이 어지러이 흩어진다는 뜻으로, 몹시 놀라 넋을 잃음'을 이르는 말이다. ③ '건곤일척(乾坤一擲)'은 '운명을 걸고 단판결이로 승부를 겨룸'을 이르는 말이다. ⑤ '난형난제(難兄難弟)'는 '두 사물이 비슷하여 닳고 못함을 정하기 어려움'을 이르는 말이다.

19) ㉠ ⑤ [해설] 주인공이 비범한 능력을 얻기 위해 도술을 배우는 것은 아버지를 구하여 충족에 이르기 위한 탐색 과정에 해당한다. / ① 목특과의 전투가 벌어지면서 충족에 이르기까지의 탐색 과정이 더 길어지게 된다. ② 노승을 통해 아버지를 더 빨리 만나게 되므로 충족에 이르는 시간이 단축된다고 볼 수 있다. ③ 부친의 유배로 결여가 생기고, 부친과의 만남은 결여를 해소한다. ④ 모친이 노비가 되어 주인공과 이별하는 것은 부친을 찾는 과정에서 겪는 또 다른 결여로 볼 수 있다.

20) ㉠ ② [해설] [A]에는 장 공이 뇌양에 온 후 부인이 병을 얻어 위

독했으나 금령이 보은초를 가져다 주자 살아나게 된 사건의 경과가 서술되어 있다. 더불어 부인의 말을 통해 과거 난리 중에 아이를 잃고 한을 품은 채 오늘날까지 살아왔음이 드러나고 있다. 그러므로 [A]는 요약적 서술과 등장인물의 말을 통해 사건의 경과를 드러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오답피하기] ① 이 작품은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서술자는 작품 밖에 존재하고 있다. ③ 인물 간의 갈등보다는 금령에 대한 장 공 부부의 감사의 마음이 나타나고 있다. ④ 특별한 배경 묘사는 드러나지 않고 있다. ⑤ 등장인물은 장 공 부부와 금령, 그리고 집안사람들이며, 특별히 부정적인 인물이 드러나고 있지는 않다.

21) ㉠ ④ [해설] 장 공은 금령이 가져다준 보은초로 인해 부인이 다시 살아나게 된 것에 대해 무척 기뻐한다. 부인이 회복된 후에 장 공 부부는 막 씨를 찾아가 금령으로 인해 다시 살아나게 된 것에 대해 고마워하고 금령을 아끼며 사랑하게 된다. 그러므로 ㉠의 '집'을 막 씨와 장 공 부인의 갈등이 심화되는 것으로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히려 그 '집'에서 막 씨와 장 공의 부인은 형제의 연을 맺고 있다.

[오답피하기] ① '초막'은 '조그맣게 지은 초가의 막집'이라는 의미로 빈곤한 막 씨의 처지를 보여주고 있다. ② 막 씨가 금방울을 아궁이에 집어넣었는데, 그 곳에서 향기가 풍겨 나왔다는 것은 금방울의 신이 한 면모를 드러내는 것이다. ③ '정문'은 '충신, 효자, 열녀 등을 표창하기 위해 집 앞에 세우던 붉은 문'으로, 막 씨의 효행을 널리 알려 막 씨를 본받을 만한 인물로 칭송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는 막 씨의 효행에 대한 사회적 보상이라고 할 수 있다. ⑤ 특정한 이름을 지어 주었다는 것은 금방울의 존재 가치를 인정해 주었음을 의미한다.

22) ㉠ ① [해설] <보기>에는 비정상적으로 태어난 주인공 금방울이 다양한 능력을 발휘하며 고난과 시련을 극복한다는 내용과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존재로서 활약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태어나자마자 어머니로부터 핍박을 당하는 내용으로 볼 때, 막 씨가 금방울을 '손으로 누르고', '둘로 깨치는' 것은 모두 금방울을 없애려고 하는 행위로, 금방울에게는 시련으로 작용하고 있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② 처음 금방울을 낳았을 때, 막 씨는 금방울이 해괴한 것이라고 여기며 이를 해치려고 하였다. ③ 금방울은 늘 막 씨 곁에 머물며 딸처럼 막 씨를 봉양하고 있다. ④ 제시된 행위들은 초월적인 행위들로, 금방울의 다양한 능력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⑤ 금방울이 가져온 보은초를 통해 장 공의 부인이 살아났으므로, 금방울은 장 공 부부의 조력자라고 볼 수 있다.

23) ㉠ ① [해설] ㉠은 '죽어도 잊을 수 없다.'라는 의미로, 장 공 부인이 아이를 잃어버린 일을 뼈에 사무치도록 한으로 여기고 있다는 뜻이다. 이 상황을 잘 나타내는 한자성어는 '각골통한'이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② 구사일생: 죽을 고비를 여러 차례 겪고 겨우 살아남. ③ 사필귀정: 만사는 반드시 바른 길로 돌아감. ④ 순망치한: 입술이 없으면 이가 시리다는 뜻으로, 서로 이해관계가 밀접한 사이에 어느 한쪽이 망하면 다른 한쪽도 그 영향을 받아 온전하기 어려움을 이르는 말. ⑤ 연목구어: 나무에 올라가서 물고기를 구하듯 도저히 불가능한 일을 굳이 하려 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24) ㉠ ① [해설] ㉠은 해룡이 악귀를 물리치고 공주를 구하는 활약을 펼치는 공간이다. 그러나 이러한 활약을 통해 해룡이 신분적 평등을 이룩하는지는 지문에 주어진 정보로는 파악할 수 없다.

[오답풀이] ② ㉠은 현실 세계와는 다른 공간이나 현실세계에 있는 궁궐과 성곽 등을 갖춘 것으로 보아 현실계를 바탕으로 형상화된 공간임을 알 수 있다. ③ 악귀의 소굴이라면 어두컴컴하고 아비규환의 지옥 같은 공간이 펼쳐지리라 예상하는데, ㉠은 '천지가 명랑하고 일월이 조요'하며, '구름 같은 석고 위에 만장폭포가 거룩'하여 경계가 뛰어내고 선경의 분위기가 느껴지는 공간이다. ④ 해룡이 지척을 분변할 수 없는 데 죽을 힘을 다하여 찾아가는 것으로 보아 ㉠은 현실계의 인간이 쉽게 접근할 수 없는 곳임을 알 수 있다. ⑤ 잡혀온 여자들이 눈물을 흘리며 해룡에게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말하는 것으로 보아 ㉠은 잡혀온 공주와 여자들이 벗어나고 싶어 하는 공간임을 알 수 있다.

25) ㉠ ① [해설] 공주가 해룡의 은혜를 죽어서도 잊을 수 없다고 한 것으로 보아 ㉠에 나타난 공주에 심정을 표현하기에 가장 적절한 한자성어는 '각골난망(刻骨難忘)'이다. '각골난망(刻骨難忘)'은 '남에게 입은 은혜가 뼈에 새길 만큼 커서 잊혀지지 아니함.'이란 의미이다.

[오답풀이] ② 노심초사(勞心焦思): 몹시 마음을 쓰며 앓을 태움. ③ 오매불망(寤寐不忘): 자나 깨나 잊지 못함. ④ 학수고대(鶴首苦待): 학의 목처럼 목을 길게 빼고 간절히 기다림. ⑤ 풍수지탄(風樹之歎/風樹之嘆): 효도를 다하지 못한 채 아버지를 여읜 자식의 슬픔을 이르는 말.

26) ㉠ ④ [해설] <보기>의 '무신'이 수박으로 변신하여 악귀의 소굴로 들어가는 것으로 보아 평범한 인물이 아님을 알 수 있고, 지문의 '해룡'은 악귀의 배 속으로 들어간 금방울 덕분에 비교적 쉽게 악귀를 물리치는 것으로 보아 비범한 인물로 제시되어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오답풀이] ① 지문의 해룡은 혼자 악귀의 소굴로 들어가므로 <보기>의 무신과 달리 하인들의 배신으로 시련을 겪지 않는다. ② 지문에서는 공주가 보검을 갖다 주어서 악귀를 죽이게 되고, <보기>역시 공주들의 도움으로 악귀를 물리치게 된다. ③ 지문과 <보기> 모두 중심인물이 악귀의 소굴로 가서 공주를 구하는 이야기이다. ⑤ <보기>의 무신은 납치된 공주를 구하려는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악귀의 소굴로 간 반면, 지문의 해룡은 공주가 소굴에 납치된 사실도 모르고 단지 금령을 구하기 위해 악귀의 소굴로 갔다.

27) ㉠ ④ [해설] 꿈속의 선관이 꿈의 내용을 누설하지 말라는 금기를 제시했는데 공주가 이를 어기지만, 이것이 공주의 불행이나 좌절로 이어지는지는 않는다. 보통 전설에서는 금기가 제시되고 주인공이 이 금기를 지키지 않아 비극적인 결말로 끝나지만, 이 작품에서는 해룡이 악귀를 물리침으로써 공주가 구출되는 행복한 결말 구조로 끝난다.

[오답풀이] ① 선관이 내일 오시에 한 사람이 들어와 공주를 구출할 것이라는 내용을 말함으로써, 앞으로 전개될 사건을 예고하고 있다. ② 해룡이 동해 용왕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밝힘으로써, 해룡이 전생에 고귀한 신분이었음을 알려주고 있다. ③ 해룡과 공주가 인연이 있는 것은 하늘의 명령이라 말함으로써, 해룡과 공주가 맺어질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 ⑤ 공주의 꿈속에 선관이 나타나 앞으로 일어날 일을 예고하는 것으로 보아 공주가 하늘의 보호와 도움을 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